

朝鮮後期の 體育思想에 關한 考察

金 成 大

體 育 學 科

(1984. 4. 26 접수)

〈요 약〉

본 연구는 조선후기 실학사상을 주도했던 세 사람의 실학자를 통해 실학에 나타난 체육사상을 고찰하였다.

실학이 추구한 것은 궁핍한 현실을 구제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실천지식을 습득하여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때 활 쏘기, 말 타기와 같은 신체활동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격완성을 위한 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학이 지닌 체육사상은 신체활동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 즉 인격수양을 위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었다. 오늘날에 신체활동 역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통적 체육사상과 별로 다름이 없다. 단지 신체활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에 대한 목적이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다. 그 당시의 사회가 武를 멸시하는 동안에 국민은 문약으로 변하고 무관의 사기는 저상되어 무에 관한 저조하였으며 이 나라 체육발전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되었다. 그 가운데서 실학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무예나 전법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발전하였으나 그 당시의 사조는 여전히 유교적 정신과 동양적 이상국가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으므로 그 결과는 크지 못하였다. 다만,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이 근대적인 체육사상 확립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A study on ideas of physical Education in CHOSUN dynasty

Kim Sung Dai

Dept of physical Education

(Received April 30, 1984)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arch ideas on physical education emphasized in "Silhak" by three scholars who mainly led the science in late chosun dynasty. The result are as follows:

"Silhak" for developing conducted the pursuit of peoples well-being through acquirement of practical and scientific technics which could solve the problems occurred in their evil days. physical activities archering and horse riding played and important role as one of a well-rounded person and keep a desirable human life. Therefore, physical activities were emphasized as not a purpose in itself. But a method for the cultivation of character. These traditional ideas on physical education are little different from todays ideas in which physical activities play a role of a method for the certain purpose. Today, only the purpose goes with recent stream and there happen various kinds of physical activities. The disregard of military arts in the society of Chosun dynasty were the most important obstruction for development of physical education, and it made people fragile and generally depressed the development of military arts and morale of

military officers. Even though the appearance of "Silhak" promoted the development of military arts and strategies in various ways but the result were not significant because the trend of that times depended on confucianism and ideas of oriental ideal nations. But it is sure that the ideas of "Silhak" in late chosun dynasty had a great inference on establishment of modern ideas on physical education.

I. 序 論

人類史上에 있어서 사람들이 追求한 人間像은 時代에 따라 같지않고 또 理想을 志向하여 行하여진 體育도 여러가지의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卽 心身의 調和의 發達을 爲하여 自進해서 行하여진 時代, 強力한 軍事養成을 目標로 行하여진 時代 神에 歸依하기 爲해 身體나 그 活動을 否定한 態度를 取한 時代 등 各 時代에 따른 特色있는 身體觀이나 體育觀을 展開하고 있다.⁽¹⁾

體育은 그 時代의 性格과 特徵 그리고 社會의 諸般背景에 따라서 體育에 內在되어 있는 性格과 그 方向이 決定되어 지고 形成되어 가기 때문에 그 時代的 狀況과 密接한 聯關關係에 있다.

그러므로 그 時代의 思想이 곧 體育의 思想的 背景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時代의 體育思想을 理解하기 爲해서는 體育의 單純한 史實의 次元을 넘어선 그 時代를 主導했던 思想을 올바르게 把握하여 그 原因과 背景을 細明함으로써만이 眞正한 體育의 價値를 診斷할 수 있다.⁽²⁾

우리民族은 代代로 東洋文化의 三大支柱인 儒, 佛, 仙 3教의 傳統의 基盤위에 立았으며 앞으로는 상당기간 동안 이 思想들에 依해 支配 관을 짓임에 틀림이 없다.⁽³⁾

그리고 이러한 思想들은 그 時代의 體育發展과 脈絡을 같이 해오고 있다. 特히 儒學思想은 三國時代以來로 學校教育의 內容을 이루고 있으며 朝鮮時代에 이르러 儒教를 崇尚하는 政策을 썼으므로 크게 繁盛하여 教育思想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고 只수도 우리의 思想을 많이 支配하고 있다.

儒學이 우리나라에 언제 傳來되었는지에 대한 確

實한 文獻은 없지만 高句麗 小獸林王 2年(AD. 372 年)에 이미 儒學教育을 實施키 爲해 太學을 設렸다는 文獻이 있어 儒學의 導入이 훨씬 그 以前임을 알 수 있다.⁽⁴⁾

그 以後로 三國 統一新羅 高麗時代까지 계속 儒學이 上流 支配層에 依해研究되었으며 朝鮮時代에 이르러서는 儒教가 國教로 指定되어 온 國民에게 儒教精神이 퍼졌으며 따라서 儒學研究가 國家의 政治 理念으로서 旺盛하였다. 儒學은 哲學, 文學, 政治, 道德 등 여러 領域을 갖고있어 時代的 背景에 따라 獨特한 영역의 儒學이 盛行했다고 할 수 있다.

性理學은 朝鮮時代 儒學의 主流을 이루는 것으로 哲學과 道德學을 主로 論한 學問이며⁽⁵⁾ 16世紀에 가장 絶頂을 이루었다.

性理學派 教育思想의 특징은 性理學派가 理氣二元論(李滉派) 理氣混一論(李珥派) 唯氣一元論(서경덕파) 唯理一元論(奇正鎮派) 者들이나 이것은 一種의 系統的 宇宙哲學을 構想하고 萬物의 變化를 說明하였다. 이 宇宙哲學으로 倫理哲學을 說明하고 이 倫理哲學으로 부터 教育哲學을 演出하였다. 이 教育哲學에서 教育의 目的이 成立 되었으므로 教育의 目的은 倫理 道德에 重點을 두어 善人을 養成하는데 있었고 最終目的은 聖賢의 자리에 到達하는데 있었다.

教育目的에서 教育方法이 生기는 것이므로 性理學派의 教育方法은 聖賢의 일을 본뜨는데 있었다. 그래서 教科書는 小學 四書三經이었고 그 崇拜의 對象은 孔, 孟, 程, 朱였고 그 修養綱領은 「窮理의 致知」「正心과 誠意」「中和와 誠明」「慎獨과 敬靜」이 있으며 그 實踐要目은 孝, 悌, 忠, 信, 禮, 義, 廉, 恥 등이었다.

朝鮮社會를 主導했던 理知的이고 貴族的인 儒教 思想은 韓末에 莫大한 混害影響을 끼쳤는바 그것은

(1) 羅絢成, 世界體育史概論, 1976, p.2.

(2) 이인숙, "우리나라 獨立運動期の 體育思想에 關한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1.

(3) 裴宗鎬, 韓國儒學史, 1975, p.5.

(4) 玄相允, 朝鮮儒學史, 1948, p.13.

(5) 前揭書, 裴宗鎬, p.56.

慕華思想과 家族主義의 弊害와 黨爭 階級思想 文弱 産業能力의 低下와 尚名主義 復古思想 등이었다.

그중에서도 特히 朝鮮社會 깊숙히 뿌리박혀 있던 思想은 文弱으로 文을 崇尚하고 武를 賤視하여 임 으로는 “有文事者 必有武備”라는 소리를 하면서도 實際로는 武를 소홀히 하고 또한 그것을 낮추어 보 는 風潮가 있었다.⁽⁶⁾

이와같이 社會가 武를 蔑視하는 동안에 朝鮮民族 은 文弱으로 變했고 이것이 國家나 各個人을 包含 한 全朝鮮을 根本的으로 懶弱하게 만드는 原因이 되 었다. 더욱이 體育의 立場에서는 이러한 要素가 韓國體育發展의 決定的이며 痼疾의인 沮害要因이 되 었다.⁽⁷⁾

이러한 觀念的인 性理學의 偶像的인 權威와 空理 空論을 止揚하고 經世致用 利用厚生 實事求是 등 現實의 實際的인 面을 追求하는 實學思想은 朝鮮後期 의 體育活動에 많은 影響을 미쳤으리라고 思料된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文獻研究를 通하여 朝鮮後 期의 代表的인 實學者들의 體育思想을 알아보고 性 理學者들의 體育思想과 比較 分析함으로써 朝鮮後 期에 主流를 이루고 있던 體育思想을 考察해 보고 자 한다.

II. 朝鮮後期の 時代的 背景

思想이란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의 時代的 背景에 依해 많이 支配되기 때문에 그 時代의 思想을 把握하려면 그 時代의 背景을 理解하는 것이 必要 하다. 先 朝鮮後期の 始作을 兩亂以後로 잡는 것 은 많은 學者들이 壬辰倭亂을 그 分支點으로 잡고 있으며⁽⁸⁾ 兩亂을 契機로 朝鮮建國때의 體制가 破綻 에 이루고 弛緩되기 始作했기 때문이다. 또 禮學의 儀式化와 性理學의 觀念化에 反對하여 우리나라의 實地 實情에 立脚한 實際的인 學風으로써 實學이 擡頭되었기 때문이다.⁽⁹⁾

16世紀 後般에 들어서 中國大陸에 있어서는 明의 勢力下에 分散되어 있던 滿州族이 興起할 徵兆가 나타났고 日本에서는 15世紀 후반이래 근 百年間의 苛 미린내나는 戰亂이 끝나고 16世紀 末에 豐臣秀吉에 依해 全國이 統一되어 그 勢力을 國外로 뻗치려고

하였다. 거기에 西勢東漸의 새로운 潮流를 탄 모두 투쟁의 東南亞 進出은 東亞의 情勢에 새로운 局面을 招來하여 韓半島에서 壬辰倭亂(1592)과 丙子 胡亂(1627)이 勃發하였다.

그 當時 이미 黨派싸움이 한창이었고 封建支配層 의 分裂 抗爭이 激化되었으며 軍布制의 盛行과 職田制의 紊亂 等 社會全體가 混亂되고 있었기 때문 에 兩亂의 영향은 매우 深刻한 것이었다. 그 影響 으로는 첫째 兩亂 以後 經濟狀態가 몹시 惡化되었 고 財政이 極度로 窮乏해져 田制와 稅制를 改編하 지 않을 수가 없었고 둘째, 邊方 防衛本部인 備邊司 가 發展하여 軍務를 總營하는 機構가 되더니 壬辰 倭亂當時에는 文武高官의 協議機構로 強化 擴大되 어 國家의 庶政一般을 處理 決定하는 機構로 變改 되어 國王의 權力이 弱화되었으며, 셋째, 戰亂中의 奴婢文書 燒失과 戰後의 國家의 財政調達을 爲한 納粟策으로 因해 身分制度가 解弛 되었음을 들 수 있 다. 이 모든 影響은 王權의 弱화와 朝鮮 政治構造 의 變質을 招來하고 兩班 官僚體制의 變化를 일으 키 結局 朝鮮 後期の 封建社會를 崩壞시키게 되었 다. 여기에 天主教의 傳來와 더불어 西歐文物과 進 步된 科學技術이 들어와 이를 通해 漸次 自我라는 思想이 鮮明해지면서 朝鮮의 本質을 알고 實情을 밝 히려는 傾向이 깊어져 實學思想이 擡頭되게 되었다.

實學思想은 詞章學이나 思辯的인 性理學을 排擊 하고 現實的으로 寄與할 수 있는 學問에 努力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는 또 學問의 實踐的인 面을 強調하여 儒教 元來의 精神으로 돌아간 것이며, 現實救濟를 爲한 現實的이고 具體的인 方案을 摸索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實學은 傳統的인 社會規範 에 對한 經驗的인 懷疑와 實證的인 批判의 精神이 깃들여 있었음으로 官僚支配層의 呼應을 받지 못했 지만 새로운 社會秩序의 確立을 위한 思想的인 前 進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III. 實學者들의 體育思想

實學思想은 크게 經世致用派와 利用厚生派와 實 學求是派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모두 儒學의 經世 救濟의 面을 크게 浮刺시키고 또한 修身과 修己의

(6) 玄相允, 朝鮮儒學史, 서울: 민중서관, 1948, p. 64.

(7) 권계서, 이인숙, 1981, p. 2.

(8) 震檀學會, 韓國史 근세전기편.

(9) 歷史學會編, 實學研究入門, p. 1.

面을 가진 結局 修己治人의 人間學으로 性理學이 新 儒學이라 불려지는데 反해서 改新儒學이라 불려지 기도 하는 學問이다.⁽¹⁰⁾

많은 實學者들 가운데 實學의 先驅者로 일컬어지는 磻溪 柳馨遠과 實學 全盛時代의 星湖 李漢 그리고 實學을 集大成한 茶山 丁若鏞을 對象으로 그들의 德育思想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磻溪 柳馨遠(1622~1673)

磻溪는 17世紀 사관으로 倭亂의 傷處가 꽤 아플 기 않아 農村 社會가 極度로 疲弊한 狀態일때 農民의 窮에서 農村復興의 方向과 制度 改編의 方法을 研究 實踐하다 하였고, 政治, 教育등 社會 各 分野에 걸쳐 많은 研究를 하였다. 그의 많은 著書中 磻溪隨錄의 傳條 條目과 이를 通해 그의 身體活動이나 武等 體育에 對한 思想을 찾아 보기로 한다.

그의 教育方法을 磻溪隨錄의 教選之制에서 찾아 보면

“教育方法은 六德 六行 六藝가 모두 가르칠 바로되 修己 治人의 道가 모두 經傳에 갖추어 있다.”⁽¹¹⁾

그는 教育의 科目으로 六藝 特히 射御를 採擇하였는데 어느 程度로 射 射 教育을 強調하였는가를 살펴보면,

“5日마다 通讀 講論하고 每月 初에 讀法하고 四時로 활을 쓰고”⁽¹²⁾

“分番하여 入直제 하며 四時로 講論하고 활을 쓰게 한다.”⁽¹³⁾

“講讀試驗으로 學校에 入學시키되 行實도 같고 學問의 程度가 均等하던 활 쓰기로 分別하고”⁽¹⁴⁾

위에서 본 것처럼 射가 얼마나 重要한 敎科目이 었나를 알 수 있다. 磻溪는 여기서 활을 쓰는 方法即 射禮를 強調하여 射가 一般의인 身體活動에 그치지 않고 禮 教育의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음을 다

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활읽는 餘暇에 활쓰기, 글쓰기, 거문고 타기 등을 하되 모두 法道가 있고 格式이 있어야 하며”⁽¹⁵⁾

“활쓰는 것은 六藝의 하나인데 先王이 이것으로 德行을 觀察하여 선미를 뽑았으니 그 뜻이 깊다. 지금 선미는 활쓰는 것을 武官이나 兵卒의 任務로 여기고 儒者인 自己가 한 일인 줄을 알지 못하기에 眞實로 禮節이 무너지고 教育이 없다. 서울과 地方의 學校는 모두 활쓰는 禮를 施行하고 餘暇日에 활을 읽고 날 後에 諸生들은 활쓰기를 익히고 敎官과 守令도 餘暇가 있으면 활쓰기를 한다.”⁽¹⁶⁾

“활 읽기와 활 쓰기를 가수 終日 하도록 하되 남지 從容하고 洽足하게 한다.”⁽¹⁷⁾

“한개 通讀하고 講論하며 다음 날에 또 활 쓰 는 禮節을 施行한다.”⁽¹⁸⁾

“구쫄은 말하기를 <儀禮>에 활 쓰기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兪금이 臣下들과 쓰는 大射의 兪金과 쓰는 賓射, 그리고 兪외에 쓰는 燕射가 있다. 天子 諸侯 大夫皆有之 세가지가 다 있고 선미는 大射가 없으며, 三代 以後에는 射禮가 施行되게 않은지 오래 되었다.…… 지금도 天下에서 모두 사포를 새우고 衛士가 봄소 先師에게 參拜하고 諸生의 講讀을 들은 후에 활 쓰기 禮에 나아가 활 쓰는 禮節을 行한다.”⁽¹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을 쓰는 데는 法道의 格式이 있어 儒生들의 身體活動과 더불어 禮儀教育을 시킬 수 있는 實踐教育 生活教育의 方法으로 射는 大端히 큰 役割을 했음을 알 수 있다.

磻溪는 武를 輕視하거나 文을 疎忽히 하고 武에만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 念慮하고 修己 治人의 教育으로 文武의 教育을 兼해야 한다는 것을 強調했다.

“武科는 弓術과 馬術만을 試驗하게 되니 성질이 거칠은 者가 많다.”⁽²⁰⁾

“文事와 武事は 본년부터 나뉘어서 두 가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文事を 당하던 儒巾을 쓰고 武事を 당하던 戎服을 입을 뿐이다.…… 近年에

(10) 金龍德 外 한국의 실학사상, p.18.

(11) 眞舉事目에 「教育之方 六德, 六行 六藝 者所講明 而修己治人之道 悉己其於 聖賢經傳」

(12) 前揭書 「其五日通 讀論 月朔讀法 四時射侯」

(13) 前揭書 「分番入直 四時講射」

(14) 前揭書 「京外學 儒額 皆有定數 擇講者過數 而行同行學均 則 別之以射」

(15) 教選之制(上)學規

「講讀之暇時 游藝 如習射寫字鼓琴等數 等 事亦皆有法有式」

(16) 教選之制(下)眞舉事目

「射者六藝之一而先王以是觀德 而擇士其意深矣 今之爲士者 視以爲武弁兵卒之任 而莫或知爲 儒者已分事誠 由禮 壞教失 而然也 京外學校皆行射行(四時射) 又以暇日或 講論之餘 諸生習射 敎官守令 亦暇以射可也」

(17) 前揭書 「講射各傳日 務令從容治」

(18) 前揭書 「與通講讀論 明日又行射禮」

(19) 前揭書 「丘浴曰 儀禮 射有三 大射, 賓射, 燕射 天子諸侯 大夫皆有之 士無大射有賓射 燕射 三代之後射禮不行…… 至今天下皆立」

(20) 前揭書 「武科 只試 弓馬之間 大半鹿駁」

儒生이라도 한번만 활을 잡으면 다시 學校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은 末弊中の 末弊이다.”⁽²¹⁾

以上과 같이 살펴본 結果 礪溪는 儒生을 教育함에 있어서 修己 治人の 教育으로 文武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文武를 兼備하는 教育을 實施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여기서 武 教育의 一部인 射는 그 行함에 있어 法道와 格式에 따라 行하게 하여 身體 鍛練과 아울러 禮教育의 方法으로 大端히 重要하게 여겨졌다.

2. 星湖 李 瀾(1681~1763)

그는 一生을 官職에 몸담지 않고 農民결에서 살았으며, 18世紀 우리나라 實學思想家中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評價받고 있다. 그의 뛰어난 睿智는 政治, 經濟, 文化 등 多方面에 作用하여 星湖僊說이라는 名作을 남겼고, 李滉 李珥와 柳馨遠의 學問에도 精通하였다.

星湖는 그 時代의 여러 制度에 滿足하지 못하고 國民에 基礎를 둔 새로운 制度를 主張했으며 生産 勞動을 重하게 여겨 6품 除去를 主張했다. 또한 進歩的인 科學思想을 받아들여 歷史를 새로운 眼目으로 바라보았으며, 中國에 대한 事大思想에서 脫皮하여 獨特한 歷史意識을 지녔었고 우리나라 近代 民族主義 思想의 先驅者로 보여진다. 그의 身體活動이나 武에 對한 生覺을 星湖僊說과 葦憂錄에서 살펴보면

“恒常 戰亂에 對備하여 文과 武를 同時에 育成해야 하며 武와 文이 아울러 輕하고 重한 區別이 없다.”⁽²²⁾

“文教가 施行됨은 어찌 武備에 힘입은 바가 아니겠는가, 文의 大略 갖추어 겨으니 武事를 急하게 여긴이 마땅하다.”⁽²³⁾

“文教과 武教는 진실로 나란히 세움이 마땅하다.”⁽²⁴⁾

이와같이 星湖는 그 當時 武를 疎忽히 하고 文만 重하게 여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平和스러운 때에도 恒常 武를 重要視하는 政策을 세워야 한다

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그의 葦憂錄에는

“孟子曰 城廓이 完全치 못하고 兵器와 갑옷이 많지 못함이 나라의 걱정이 아니고 들이 開拓되지 않고 財物이 모이지 않음도 나라의 害가 아니다. 웃 사람이 禮가 없고 아랫사람이 배움이 없으면 盜賊이 일어나 곧 亡하게 된다.”⁽²⁵⁾

即 그는 人間關係에 있어서 禮儀를 強調했고 배움을 強調하였다. 아마 星湖도 禮教育을 爲한 方法으로 射 御를 使用했으리다 推測되나 星湖僊說과 葦憂錄에는 教育 特別 武나 禮教育에 對한 仔細한 言及이 없다.

3. 茶山 丁 若鏞(1762~1836)

16歲에 實學大家인 李瀾의 論告를 읽고 實學에 心醉하게 된 그는 天主教 書籍과 西洋文物을 接함으로써 空理空論의 性理學의 有害性을 깨닫고 새로운 科學技術과 知識에 觀心을 갖게 되었다.

正祖가 죽은 後 강진에서 18年間의 긴 流配生活에서 오직 讀書와 著述에만 專念함으로써 수많은 著書를 남기게 되었고 實學思想의 集大成者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思想은 哲學, 政治, 軍事, 文學, 天文, 地理등 거의 모든 學問分野에 미쳤으며 特別히 當時의 窮乏과 疲弊에서 國民을 救濟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自然科學과 技術을 배우고 利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 人間의 本性이 本來 至善한 것으로서 仁·義·禮·智가 곧 그것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것도 實踐의 結果로서만 云謂될 수 있는 것이지 實踐을 無視하고 그 先天性만을 主張하는 것은 無意味하다”⁽²⁶⁾고 하여 人間의 主體的 道德修養으로써 禮 教育을 重視하였다. 이렇게 그는 儒學의 實踐性을 強調하고 禮 教育을 主張하였다. 그의 體育思想을 俗儒論에서 살펴보면

“참된 儒學은 本來 나라를 다스리고 百姓을 平安케 하며 夷狄을 물리치고 財政을 豐足하게 하며 文武에 能通하여 무엇이든지 擔當할 수 있어야 한다. 어찌 字句나 文章만을 取捨하고 별레나 물고기를 註釋하는것만을 일삼으며 소매 넓은 웃

(21) 前揭書 「文武本不可歧而二之 但當在文事 冠巾 當武事則戎服 ……儒士者一操弓矢 則不得復入學校者 尤末弊之末弊也」

(22) 星湖僊說 文武並用에 「則武與文並 未見有輕重之別也」

(23) 上揭書 武備爲急에 「文教之所以行 豈非有賴於武備 文既略備正當 以武事爲急」

(24) 上揭書 武成王廟에 「文武不可關一 文武二教固宜並立」

(25) 葦憂錄 育才에 「孟子曰 城廓不完 兵甲不多 非國之災也 田野不闢 貨財不聚 非國之害也 上無禮 下無學 賊民興則亡」

(26) 歷史學會編, 實學研究入門, p. 319.

을 입고 두 손 모아 人事하는 것만 익힐 것인가 옛날에 子息을 낳으면 四方에서 활 쏘기를 익히게 하고 조금 成長하던 舞象과 舞勺을 배워 武德을 익히게 하며 壯年이 되면 弓術과 馬術을 가르쳐 教育의 意味가 가히 불만 하였다. 그러므로 戰爭의 일어난던 戰場에 나아가 싸우는 일은 學校에서 行해졌었다. 學校는 헛되이 讀書나 하는 곳이 아니었다. 孟子는 齊 나라와 梁 나라의 임금의 오르지 戰爭담을 崇尚하는 것을 憂慮하여 말마다 仁義를 強調하였는데 이것은 지나친 尚武精神을 바로 잡으려는 意圖에서 그랬을 뿐이다.”⁽²⁷⁾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茶山은 모든 儒生이 百姓의 福利增進이나 生活向上을 爲한 現實의 目標을 全體로 하여 學問에 힘써야 한다고 主張하여 儒學의 實踐性과 實用性을 強調했다. 또한 教育에 있어서는 文에 偏重하지 않고 말타기, 활쏘기, 줄추기 등 身體活動을 通하여 身體鍛鍊과 武德을 쌓음이 꼭 必要하다고 하였고 性理學者들이 武를 輕視함은 高麗末期의 崇武思想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일거라는 解釋도 내렸다. 이는 그 當時 等閑視되던 身體活動 射와 御 같은 武 教育에 한층 神經을 써야 함을 말한 것이다. 그의 身體活動觀을 禮樂論에서 살펴보면,

“經學에서 等閑視된 實踐 教育의 部分을 배우기 위해 六藝를 國家에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必要 科目으로 여겼다.”⁽²⁸⁾

六藝中 禮樂은 人間의 品性을 키워주는 德育의 方法이라 할 수 있고 書數는 日常生活을 營爲하는데 必要한 知識 教育의 方法이라고 할 수 있듯이 射와 御 亦是 身體活動으로써 體育의 範疇에 들어갈 것이다.⁽²⁹⁾

그러나 射와 御는 그 行함에 있어서 法道와 格式이 있으니 이는 禮儀教育의 方法으로도 쓰여지고 또한 反求諸身의 獨特한 役割을 지니고 있어서 修己

의 方法으로도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茶山의 教育目標가 修己治人의 君子를 育成하는 것이므로 六藝中 射 御는 修己와 禮儀教育을 위해 꼭 必要한 方法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Ⅶ. 性理學者와 實學者들의 體育思想 比較

朝鮮 前期에는 性理學이 後期에는 實學이 强盛하였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여기에서는 性理學과 實學의 差異點을 살펴보고 兩大思想의 體育思想이 어떻게 다른가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性理學은 그 主要對象이 哲學과 藝學이어서 儒敎의 實踐의 인面을 疎忽히 取扱하였기 때문에 實際로 射 御와 같은 身體活動을 等閑視하고 武 教育에 疎忽히 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性理學의 淵源은 儒敎이기 때문에 修己治人의 基本精神은 가지고 있었으나 黨爭과 官職의 爭奪에 정신이 쏠려 그의 實踐에 無關心했기 때문이다. 性理學者들도 個人的으로 射 御는 身體活動과 衛生에 關한 思想을 갖고 있었음을 退溪에서 살펴보면,

“나는 어려서 學問에 뜻을 두었으나 中途에 心病으로 거의 廢人이 되다시피 했다가 晩年에 깨닫고 이 큰 일은 다치고자 하나 이미 血氣가 衰弱했고 뜻과 생각이 固執하지 못하니 恨歎스럽다.”⁽³⁰⁾

“하루는 여러사람과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술에 취해서 말에서 떨어졌다.”⁽³¹⁾

“先生께서는 서울에 계시때에 畵타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다. 大闕에 들어가 임금을 모시고갈 때에도 말이 없으면 남에게 빌려서 탈지언정 軒을 타지 않으셨다.”⁽³²⁾

이와같이 四端七情과 理氣에 대한 훌륭한 學問的 業績을 지닌 性理學者 李滉도 말타기를 좋아했고 健康에 神經을 써야 함을 強調하고 있으니 文에만 置

(27) 與猶當得替

「眞儒之學 本欲治國 安民壞與狄 裕財用 能文能武無所不當豈專 章摘句註蟲釋魚逢衣習拜揖而已戰
三書生子 孤矢射四方 檜長舞勺以習武德既壯學射御其敎人之義可見矣 故與師獻獻乃於學宮行之學宮者非從令讀書得而已
孟子褒齊樂之君專尚戰鬪成言皆仁義蓋欲以矯其過耳」

(28) 小學 孫申에

「六藝書 國子之所肄習也 禮有節文 樂有長族 射以中鵠 御以調馬 書別優劣 數別乘除 此之謂六藝也」

(29) 中庸 14章

「子曰 射有似乎君子 矢諸正鵠 反求諸其身」

(30) 李滉 言行錄 學文條

「吾少時有志此學 中因心病幾至廢墮 晩後覺悟欲了 此一大事 而血氣已衰 志慮難強 可難也」

(31) 前揭書 家庭附 儉約條

「一日與人遊獵于野 醉而墜馬」

(32) 前揭書 家庭附 儉約條

「先生在都下不乘善軒 至於詣闕人待之日難無馬 心借騎於人而未嘗乘軒」

重하지 않고 修己에도 많은 努力을 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退溪는 保健衛生에 대하여 關心을 갖고 「治人心方」이라는 것을 執筆하고 朝夕으로 自身이 그 體操를 實行하였다라는 것은 注目할만한 일이다.

또 栗谷도

“몸을 닦는 공부에는 知識을 넓히는 것도 있고 行하는 것도 있다. 知識은 착한 것을 밝히는 것이요, 行하는 것은 몸을 誠實하게 하는 것이다.”⁽³³⁾

“글을 읽는 餘暇에는 때로 彈琴 習射 등의 遊藝도 좋다.”⁽³⁴⁾

라고 하여 탄금 습사등 六藝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으니 知識 以外에도 禮로서 行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代表的 性理學者인 退溪와 栗谷의 教育方法도 修己治人の 範疇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禮 教育에 重點을 두었기 때문에 體育는 全然 度外視한 教育觀을 지니고 있었다.

實學 亦是 實踐儒敎를 志向하기 때문에 實踐의 인面인 六藝 特別 射 御를 통해서 禮 教育을 行함을 重視하였고 修己治人을 目標로 하였다. 그러므로 實學이 性理學에서 疎忽히 다룬 實踐의 人面을 強調하고 나서 實踐의 人面 問題를 解決하려 하고 西歐의 科學技術文明을 받아들여 했음이 性理學과 다른 點이지 그 淵源은 儒敎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志向하는 人間은 修己治人할 수 있는 文武兼備人이었다. 또한 그들이 지닌 體育思想은 身體活動이 身體鍛練에 그칠것이 아니라 人間生活을 圓滑히 할 수 있는 禮儀를 教育하는 手段으로 그리고 反求諸身할 수 있는 手段으로써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V. 結 論

以上과 같이 朝鮮後期 實學思想을 主導했던 세 사람의 實學者를 통해 實學에 나타난 體育思想을 考察해 보았다. 實學이 追求하는 것은 實踐의 人面 儒敎에 바탕을 두고 窮乏한 現實을 救濟할 수 있는 科學技術과 實踐知識을 習得하여 온 國民이 잘 살도록 하자라는 것이다. 이때 射 御와 같은 身體活動은 修己 即 人間다운 生活을 營爲하는데 必要한 人格 完成을 위한 한 方法으로 重要한 役割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實學이 지닌 體育思想은 身體活

動 그 自體에 目的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떤 目的을 위한 手段 즉 禮儀教育을 위한 方便 修己 即 人格 修養을 위한 方法으로 보는 것이다.

體育이 身體活動을 통한 教育으로서 定義되고 그 目的이 人間에게 있어서 精神的, 情緒的, 社會的 및 身體的 自我를 可能限 한 最高度로 發達시켜 各層로 하여금 人生에서 보다 큰 幸福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더 큰 奉仕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날에 身體活動 亦是 어떤 目的을 위한 手段으로 使用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傳統的 體育思想과 별로 다름이 없다고 보여진다. 但只 身體活動의 種類가 多樣해지고 그에 對한 目的이 時代的, 社會的 與件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다.

그 當時의 社會가 武를 蔑視하는 동안에 朝鮮民族은 文弱으로 變하고 말았으며, 武官의 士氣는 一般적으로 沮喪되어 武藝 또한 低調를 免치 못하여 體育發展에 決定的이며 福疾의 人 沮害要因이 되었다.

그리고 實學思想이 擡頭됨에 따라 武藝나 戰法이 새로운 樣相을 띠고 發展하였으나 그 當時의 思潮는 如前히 儒敎의 精神과 東洋의 理想國家에 그 基盤을 두고 있었으므로 그 結果는 그리 크지 못하였다. 다만, 朝鮮後期の 實學思想이 近代的인 體育思想의 樹立에 많은 影響을 주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라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1. 金敬豚, 栗谷의 研究, 서울: 한국연구도서관, 1960.
2. 김득황, 한국사상사, 서울: 남산당, 1958.
3. 金龍德外 한국의 실학사상, 서울: 삼성출판사, 1979.
4. 金龍德, 조선후기사상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77.
5. 김익수, 유가사상과 교육철학, 서울: 형설출판사, 1976.
6. 羅絢成, 한국체육사, 서울: 문천사, 1978.
7. _____, 世界體育史概論, 서울: 백양문화사, 1976.

(33) 李珣 聖學輯要 修己條
「修己工夫有知有行 知以明善 行以誠身」

(34) 上揭書 學校模範條
「讀書之暇時 或遊藝如彈琴習射」

8. 박종홍, 한국사상사 논고, 서울:서문당, 1977.
9. 배종호, 한국 유학사, 서울:연대출판사, 1975.
10. 손인수, 한국교육사상사, 서울:재동문화사, 1965.
11. _____, 한국근대교육사, 서울:연대출판사, 1975.
12. 역사학회 편, 실학연구입문, 서울:일조각, 1974.
13. 이을호, 茶山學의 理解, 서울:현암사, 1974.
14. 이인숙, 우리나라 獨立運動期의 體育思想에 關한 考察,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1.
15. 震檀學會 편, 한국사, 서울:을유문화사, 1962.
16. 천관우, 근세조선사 연구, 서울:일조각, 1979.
17. 한국교육학회 편, 한국유학사상과 교육, 서울:삼일각, 1976.
18. 한국사상대전집 22권, 24권, 서울:동화출판사, 1977.
19. 玄相允, 조선유학사, 서울:민중서관, 1948.